

9월 보건소식지



9월의 건강 실천

우리의 마음까지도 덥게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날씨도 변하고 하늘도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하늘만큼 우리의 마음에도 높고 깊은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서 추석연휴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염병 없는
건강한 학교로
만들어요



NOTICE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



❗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출처: 경북 학교감염병 예방소식지 9호

1. 추석 연휴 귀경.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무르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자세히 관찰하기
2. 추석연휴 후 학교 등교 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하기
3.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해보기
4. 확진 시 방역기관 통보내어 등록하기
5. 일상생활속에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지키기

9월 9일은 귀의 날

9월 9일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정한 '귀의 날'

입니다. 숫자 9가 귀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각종 생활 소음에 이어폰, 헤드폰 사용으로 **청소
년 소음성 난청이 증가** 추세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근
본적 치료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필수**입니다!



- ✓ 큰 소음은 피해요!
- ✓ 귀지를 함부로 파지 않아요.
- ✓ 귀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요.
- ✓ 60-60법칙을 지켜요.

외이도염 예방법



중이염 예방법



소음성 난청 예방법



NOTICE



가을철 열성 감염병 예방

가을철 열성 감염병은 들쥐 배설물이나 쥐 진드기에 의해 주로 9~11월에 발생하여 발열과 두통 증 전신증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종류	감염경로	증상	발생시기
유행성 출혈열	들쥐, 집쥐 등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	고열, 두통, 복통	7월 10월~12월
렙토스 피라증	감염된 동물(들고양이, 들쥐)의 소변으로 배출된 균이 몸에 난 상처를 통해 전염	고열, 두통, 근육통, 눈의 충혈	9~11월
쯔쯔가 무시	관목 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	진드기에 물린 상처, 열, 두통, 발진	9~11월

- ✓ 산과 들에서는 긴 옷을 입습니다.
- ✓ 잔디 위에는 자리를 깔고 앉으며 잔디에서 옷을 말리지 않습니다.
- ✓ 야외에서 집에 돌아오면 옷을 털고 목욕합니다.
- ✓ 논밭에서 작업시 장화,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피부 노출을 피합니다.
- ✓ 야외활동 후 갑작스런 고열 시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